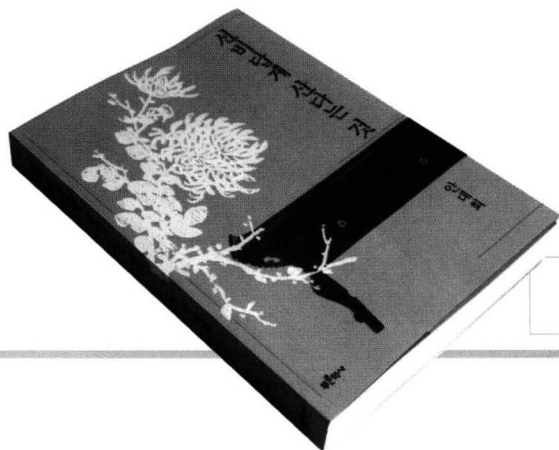


우리를 닮은 익숙한 벗을 만나는 여유와 기쁨

펼 펼 살아 움직이는 옛사람들의 이야기

글_신상미 푸른역사 편집부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구차하게 해야 한다거나, 억지로 상대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천 년 전 옛 사람을 친구로 삼든가 일백 세대 뒤에 태어날 사람과 마음이 통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일은 오래 전 옛 선비를 벗으로 삼는 일이다. 옛 선비들로서는 오래 뒤에 태어난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일 것이다. 스스로를 ‘호고벽(好古癖)에 빠진 사람이라 하는 저자는, 이런 연암의 편지글처럼 정갈한 옛 글을 골라 가끔은 현실의 구차한 관계보다 나을 법한 옛 선비들과의 사귀를 주선해 준다.

18세기 김광수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온갖 골동품을 수집하는 벽(癖)이 있었다. 이조판서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벼슬도 포기하고 오로지 고동서화(古董書畫·골동품과 글씨 그림)를 사들여 감상하고 품평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양길을 거닐다 고송(古松)이 서 있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산수화에 나올 법한 멋진 소나무, 그 고고한 자태에 넋이 나간 김광수는 소나무 한그루에 매료돼 값비싼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한다.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옛사람의 삶을 구수하게 풀어낸 이 책을 통해서 선비들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때론 그들을 닮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 1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유만주를 보면 일기장 하나 마련하고 싶다. 절식을 실천한 성호 이익의 글을 보면 웬지 밥 한 술 덜어내고 싶다.

선비란 무엇일까.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지만, 흔히 군자나 도학자처럼 유교 이념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

돼 왔다. 그러나 한문학자인 저자가 옛글 속에서 찾아낸 선비들의 모습은 근엄하게 품을 잡지 않는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인간적이면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전한다.

옛글 읽기의 기쁨은 옛사람들이 우리와 달리 좀스럽지 않고 ‘진짜 벗’과 마음을 나누었고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했다는 데에서 오는 신선한 자극뿐 만은 아니다.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자 신선이 자신을 위로하는 형식의 편지를 자신에게 보내 스스로를 달랠던 이규보처럼 ‘펼 펼 살아 움직이는’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닮은 벗을 만나는, 익숙한 위안의 기쁨도 선사한다.

이러한 기쁨은 옛글과 옛사람을 우리에게 주선해 준 안대회 선생의 덕이 크다. 시종일관 단백하게 풀어내는 글 솜씨에서 그는 어떠한 기교도 없이 옛사람들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저자가 머리말에 남긴 조희룡의 글은 이 모든 생각을 압축한다.

“이 작은 제목을 빌려 산만하고 무료한 말을 엮어냅니다. 여기에는 제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어린애들이 티끌을 밥으로 삼고, 흙을 국으로 삼고, 나무를 고기로 삼아 소꿉놀이 하는 놀이와 같습니다. 그저 유희에 불과할 뿐 먹지 못하는 물 건들임을 아이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밥이나 국이나 고기로 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보아 주셔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과 팍팍한 인간관계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천 년 벗들은 향기어린 사색과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